

다원주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단언컨대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 창조 이후부터 인류는 다원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원성은 현상과 경험을 설명하는 적절하고 유용한 그릇이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다원성이 근래에 들어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되고 있다. 다원성이 현상과 경험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가치와 윤리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늘의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다.

최근 한국 교회는 다원주의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위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입법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동성애 관련 문제가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은 모든 국민이 여하한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법 취지를 가진 법안이다. 개인의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윤리적 판단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동성애 문제를 개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윤리의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일었다. 다원주의는 당연히 전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를 규범적인 윤리의 문제로 보려는 기독교계의 시각은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여론의 못매를 맞아야만 했다.

다원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강하게 일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 논쟁이 그것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길이 결국 하나의 종착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초월적 절대자인 신은 많은 이름을 가졌으나 결국은 동일한 실체에 대한 다양한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종교진화론의 견지에서 본다면 어차피 신앙은 진화의 과정 중 획득된 인간 경험의 투사에 불과한 것으로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모든 종교는 나름의 진리 주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신앙 체계의 내적인 차원에서 독특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종교와 전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종교의 진리주장을 타종교인에게 강요하며 개종을 유도하는 것은 다양한 종

교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해치는 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들의 선교는 독선적이며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통해 촉발되어 동국대학교 불상 훼손 사건과 봉은사 땅밧기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비난의 강도가 높아졌다.

기독교 선교가 배타적이라는 비난과 비판은 기독교계 밖의 목소리로만 머물지 않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것이다.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외부적 경계가 타종교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 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기점으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의가 한국 교회들에게도 큰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종교들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기독교 내부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진리와 규범의 부재 혹은 인식 불가능성을 이유로 다원성을 절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면에서 다원주의가 다원성을 절대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따라서 시대적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이중언어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원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선교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단상을 나누고자 한다.



연승철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취득(Ph. D. 선교신학 전공)하였다. 사랑의교회 대학부 디렉터, 선교한국의 조직위원으로 섬기다가, 현재는 교구담당 및 지역사회선교부 담당으로 섬기고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광장(Public Square)에 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광장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주관적이고 사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종교는 좁은 골방으로 밀려나야만 했다. 하지만 마땅히 광장에 설 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해왔던 대부분의 진리주장들의 규범성이 해체되었다.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독점적으로 광장을 차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원주의는 누구든 광장에 서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도록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이제 다시 우리는 겸손한 자신감으로 광장에 서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식론적인 자기 이해의 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하여 다원성을 극대화 하는 시대적 흐름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분별하게 휩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절대적인 자기 계시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유일한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위에 세워져 있다. 계시된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와 규범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진리는 그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식의 참 됨을 담보하기 위해 정초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식과 신앙과 삶을 위한 유일하고 유익한 규범이다.

셋째는 다원성에 대한 인정, 배려, 존중이 필요하다.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최근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IS)이 벌이고 있는 테러행위는 그들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절대 용납 될 수 없는 일이다. 다원주의 시대에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곧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넷째는 성경의 이야기가 적절한 시대의 언어로 들려질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성경이고 복음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오늘의 언어로 들려주어야 한다. 복음을 동시대의 언어와 레토릭으로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그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언어적인 이야기와 함께 체험을 담은 비언어적인 이야기로도 다양하게 들려져야 한다. 이야기가 가진 힘이 있다. 이야기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초이다. 따라서 우리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설득력있고 실효성있는 이야기여야한다. 다원주의 시대에 복음은 이야기가 가진 독특한 영향력을 매개로 적절하게 동시대에 선포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다원주의 시대는 결국 다양한 세계관들의 소리 없고,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는 것이다. 다양한 진리주장들이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말해진다. 사람들은 다양한 세계관을 담은 이야기들을 듣고, 적용해 보고, 평가한 후 자신의 이야기(세계관)로 받아들인다. 성경의 세계관을 담은 우리의 이야기를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들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들은 허망한 세상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원주의 세계관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늘을 구속하기 위해 성경에 토대를 둔 선교적 세계관 변혁이 필요하다.

여섯번째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시대 가장 주된 세계관을 선교적으로 변혁하는 과정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선교적 세계관 변혁의 가장 중요한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은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되어야 한다. 